

COVID-19 이후 일상 변화에 대한 성인의 인식

김은엽¹, 김재영^{2*}

¹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부설 피부영상의학연구소

²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중점연구개발센터

Adult's Perception of Every Day Life Change After COVID-19

Eun-Yeob Kim¹, Jae-Young Kim^{2*}

¹Research Institute for Skin image, College of Medicine, Korea University, Seoul, Republic of Korea

²Core Research & Development Center, Korea University Ansan Hospital,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요약 본 연구는 COVID-19와 같은 신종전염병으로 인한 일상생활, COVID-19에 대한 인식, 심리·감정 태도의 변화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데이터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전 국민 만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2022년 8월 21일~9월 4일까지 온라인 설문 조사한 “COVID-19 이후 국민의 일상변화” 자료에서 서울·경기·인천지역 성인 512명을 추출하고 성별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COVID-19로 인한 가계 경제의 변화에서 COVID-19로 인하여 남·여 모두 가계 경제가 어려워졌고, 월수입도 감소했다고 응답하였다. COVID-19 종식 후 변화될 생활상태 변화는 건강관리 및 개인위생은 COVID-19 전보다 관리를 증가한 상태로 유지할 것이라 하였다 ($p=.026$). COVID-19 발생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에서 COVID-19 관련 허위정보 및 오정보를 남성이 여성보다 잘 구별한다고 인식하였다($p=.001$). COVID-19로 인한 심리감정 상태는 “불안 두려움($p<.001$)”, “무기력감 또는 좌절감($p<.001$)”, “짜증 또는 화($p=.029$)”, “걱정 또는 스트레스($p<.001$)”, “외로움 또는 우울($p<.001$)”에서 남성보다 여성이 높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COVID-19의 종식보다는 “위드-코로나”를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시점에서 조만간 우리가 맞게 될 “위드-코로나”에 대한 억눌리고 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폭발적 발산이 아닌 체계적으로 준비된 “위드-코로나”를 맞이해야 앞으로 발생하는 신종전염병과 같은 재앙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Abstract This study was undertaken to determine changes in daily life due to new infectious diseases such as COVID-19, the perception of COVID-19, and changes in psychological and emotional attitudes. Our research material was data collected from an online survey of 1,000 adults aged 19 and older. The survey was conducted by the Korea Press Promotion Foundation from August 21 to September 4, 2022, titled "People's Daily Changes After COVID-19". Of the total subjects, 512 adults in Seoul, Gyeonggi, and Incheon were analyzed according to gender. Considering changes in the household economy due to COVID-19, both men and women responded that the household economy became difficult and monthly income decreased due to COVID-19. Compared to pre-COVID-19 times, we determined an increase in health care and personal hygiene management in the lifestyles ($p=.026$), which may change after COVID-19 ends. When considering the influence of COVID-19 outbreaks on individuals, men distinguished COVID-19-related misinformation better than women($p=.001$). The psychological and emotional states caused by COVID-19 were found to be "nervous angry($p<.001$)", "infertility or frustration($p<.001$)", "anxiety or anger($p=.029$)", "worry or stress($p<.001$)", and "loneliness or depression($p<.001$)". Women showed higher levels of mental distress as compared to men. Our results indicate that we should prepare for living "With-CORONA" rather than the end of COVID-19. Moreover, we need to be systematically prepared to live a "With-COVID" lifestyle rather than face an explosive spread of an unknown entity.

Keywords : COVID-19, With-COVID, Perception, Everyday Life, Adult

*Corresponding Author : Jae-Young Kim(Korea University Ansan Hospital)

email: jaykim830@gmail.com

Received May 9, 2022

Revised June 16, 2022

Accepted August 3, 2022

Published August 31, 2022

1. 서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는 SARS-Co-V-2 감염으로 인한 호흡기 증후군으로 COVID-19에 감염되면 발열, 기침, 오한, 호흡곤란 및 폐렴 등 다양한 호흡기 증상을 보이고, 사망에까지 이르기기도 한다[1]. COVID-19는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발병되어 중국 전역을 포함하여 전 세계로 빠르게 전파되었다[2]. 이에 WHO에서는 감염병 최고 경고 등급인 Pandemic을 선언하였다[3]. WHO에 의하면 COVID-19의 전 세계 치명률은 0.00%~1.63%로 주의와 관리가 필요한 질병이라 하였다[4].

국내에서도 2020년 1월 20일 첫 COVID-19 확진 환자가 발생한 이후[5], 지속적으로 확진 환자가 전국으로 발생했고[6], 2021년 10월 기준 COVID-19 누적 확진자는 국외 2억 3천 9백만여 명, 국내 34만여 명을 넘었고, 사망자 수는 487만여 명을 기록하였다[7]. 또한, COVID-19는 SARS나 MERS 때와 다르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반에 큰 영향과 변화를 가져왔고[8], 문화체육관광부(2020)에서 COVID-19 자가격리 관련 국민인식 조사결과 84.3%가 심각하고, 감염 가능성도 55.8%가 우려와 걱정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9].

그러나, 백신의 개발과 정부의 방역대응, 국민의 생활방역 등으로 인하여 점차 COVID-19 발생은 점차 감소하고 있고, 2022년 4월 13일 기준 국내 COVID-19 신규 확진자는 195,382명, 해외유입 사례는 37명 발생과 위중증 환자 1,014명 사망자 184명 누적 사망자는 20,034명(치명률 0.13%)이라고 하였다[10]. COVID-19에 대한 우리사회 인식도 “위드-코로나” 즉, 코로나 완전 종식보다 코로나와 공존을 준비해야 한다는 인식과 함께 정부도 거리두기 조치 외에도 방역·의료체계를 좀 더 장기적으로 일상화하는 방안을 담은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도 준비하고 있다[11]. 이와 함께 지난 3월 21일부터는 해외 입국자의 자가격리 의무가 없어져 해외여행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가고 있으며[12], 외교부는 “정부의 방역 정책 기조 및 전 세계 COVID-19 동향 등을 감안해 특별여행주의보를 해제하고 14일부터는 각 국가별 기존 여행경보 발령 체제로 전환한다”고 하였다[12,13].

COVID-19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삶의 양식을 완전히 바꿔 놓았으며, 마스크 쓰기, 손 소독 등이 일상이 되었고, 언택트(untact) 사회로 전환이 시작되었다고 한다[14]. 이 시점에서 국민들이 생각하는 COVID-19 전후에 대한 생각과 인식 변화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할 필요

가 있다. 신종전염병 COVID-19로 인하여 학문연구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했고, Kim(2021)도 COVID-19와 같은 신종전염병 유행 상황에서 외상후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사회적 지지 역할 연구들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15]. 이에 본 연구목적과 필요성으로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COVID-19가 우리 일상생활을 어떻게 바꿔놓는지 조사한 보고서를 활용하였고, 수집된 데이터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가산하기관의 원시자료를 활용함으로써 개인의 연구가 제한된 상황에서 연구를 위한 공신력 데이터로 연구에 활용하였다. 이제 우리는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들이 생각하는 COVID-19로 인한 생활의 변화와 “위드-코로나”라 한 공존 생활을 생각해야 하는 시점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정부나 국가기관이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국민 개개인들은 어떻게 대비하고 생활하면 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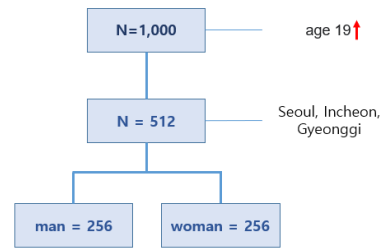


Fig. 1. Cleanging of data

2. 연구방법

2.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2020년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전국민 만 19세 이상 성인 1,000명 17개 광역시도별 주민등록인구 현황에 따라 인구비례 할당을 통한 다단계 층화추출하여 2022년 8월 21일~9월 4일까지 온라인 설문 조사한 “COVID-19 이후 국민의 일상변화(Changes in the everyday life after COVID-19 in Korea)” 공개 자료를 활용하였다. Fig. 1과 같이 대한민국 17개 행정구역 중 COVID-19 발생도 높은 수도권 서울·경기·인천 3곳의 19세 이상 성인 총 512명(서울 195명, 인천 60명, 경기 257명)을 추출하였고, 성별(남성 256명, 여성 256명)에 따라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2.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조사한 COVID-19 이후 국민의 일상변화 조사 내용 중 연구목적에 맞는 변수를 선별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일상변화에서 일상 활동(COVID-19 전후 일상활동 변화-수면, 식사 및 간식(외식, 배달음식, 직접요리), 개인위생, 일(유연 및 재택근무), 가사노동, 이동(대중교통, 자가용), 친교 및 사교활동(온·오프라인 사교활동), 미디어 이용, 종교 생활, 운동, 공연·예술·영화 등의 현장 관람, 쇼핑(온·오프라인), 여행)과 경제(가계 경제 변화, 월수입 변화) 2) 포스트 COVID-19 인식 변화에서는 COVID-19 이후 일상(수면, 식사 및 간식(외식, 배달음식, 직접요리), 개인 유지(개인 건강관리, 개인위생 등), 일(유연 및 재택근무), 가사노동, 이동(대중교통, 자가용), 친교 및 사교활동(온·오프라인 사교활동), 미디어 이용, 종교 생활, 운동, 공연·예술·영화 등의 현장 관람, 쇼핑(온·오프라인), 여행) 3) 포스트 COVID-19 이후 재개하고 싶은 활동(다중이용시설 방문·쇼핑몰·레스토랑 헬스장, 아웃도어 활동-운동-등산캠핑, 공연·예술·영화 관람, 국내외 여행, 현장 교육 참가, 종교(집회) 참석, 가족 및 지인 만남, 회식 등 사회적 모임) 4) COVID-19 이후 사회상(COVID-19 이후 우리 사회 변화 예상, 방향)과 추후 재난 발생 시 대처 능력(재난 발생 시 자신·한국·세계의 대처능력, 우리 사회의 어려움 극복능력, 보다 나은 사회에 대한 인식) 5) COVID-19가 개인에게 미치는 심리·감정 변화 6) 일반 변인은 성별, 나이, 거주지를 사용하였다. 일상변화, COVID-19 인식변화, COVID-19 이후 사회상, COVID-19가 개인에게 미치는 심리·감정 변화 문항은 Likert 5 point's scale로 환산하여 분석하였다.

2.3 분석방법

통계분석을 위하여 Micro-soft EXCEL로 분석용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기술통계와 빈도 분석, 변수의 특성에 따라 Chi-square test 또는 Mann-Whitney 분석을 하였다. 분석에 사용한 소프트웨어는 IBM SPSS/WIN ver 25.0을 사용하였고, 통계적 유의수준은 $p < .05$ 로 지정하였다.

3. 연구결과

3.1 COVID-19로 인한 소득의 변화

Fig. 2는 COVID-19 발생 전보다 가계 경제 소득의 변화와 월수입 차이가 있는지 나타낸 결과이다. 성별에

서 “COVID-19 전후 가계 경제의 변화”는 남녀 모두 COVID-19 후 가계 경제가 어려워졌다고 50% 이상 응답하였으나 성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없었다($p=.579$). “COVID-19 전·후 가정의 월수입 변화”는 남녀 모두 COVID-19 후 가정의 월수입이 약42%가 감소했다고 응답하였으나 성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없었다($p=.529$).

3.2 COVID-19 종식 후 변화될 생활 상태 변화

COVID-19 종식 이후 COVID-19 전과 비교한 일상생활 상태를 증가 또는 감소시킬 것인지 인식을 조사한 결과는 Fig. 3와 같다. COVID-19 종식 이후 개인 건강관리 및 개인위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조사한 결과 “COVID-19로 인해 감소 또는 증가한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는 남성 131명 65.8% 여성 157명 75.8%, “COVID-19 이전 상태로 복귀할 것이다.”는 남성 68명 34.2% 여성 50명 24.2%로 개인 건강 및 개인 위생 관리를 증가한 상태로 유지한다는 의견이 높았다($p=.026$). 코로나 19 종식 이후 상태-미디어 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조사한 결과 “COVID-19로 인해 감소 또는 증가한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는 남성 78명 42.4% 여성 107명 53.2%, “COVID-19 이전 상태로 복귀할 것이다.”는 남성 106명 57.6% 여성 94명 46.8%로 남성은 COVID-19 종식 이전 상태로 미디어 이용을 복귀한다는 의견이 높았다($p=.033$). COVID-19 종식 이후 오프라인 쇼핑을 어떻게 할 것인지 조사한 결과 “COVID-19로 인해 감소 또는 증가한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는 남성 76명 38.4% 여성 105명 48.4%, “COVID-19 이전 상태로 복귀할 것이다.”는 남성 122명 61.6% 여성 112명 51.6%로 남성은 COVID-19 종식 이전 상태로 오프라인 쇼핑을 복귀한다는 의견이 높았다($p=.040$).

3.3 COVID-19 종식 이후 재개 활동

COVID-19 종식 이후 가장 재개하고 싶은 활동에 대한 다중응답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남성은 1순위 “국내·외 여행” 353명 2순위 “다중이용시설 방문(쇼핑몰, 레스토랑, 헬스장 등)” 3순위 “가족 및 지인 만남” 등 순이었고, 여성은 1순위 “국내·외 여행” 353명 2순위 “가족 및 지인 만남” 3순위 “다중이용시설 방문(쇼핑몰, 레스토랑, 헬스장 등)” 등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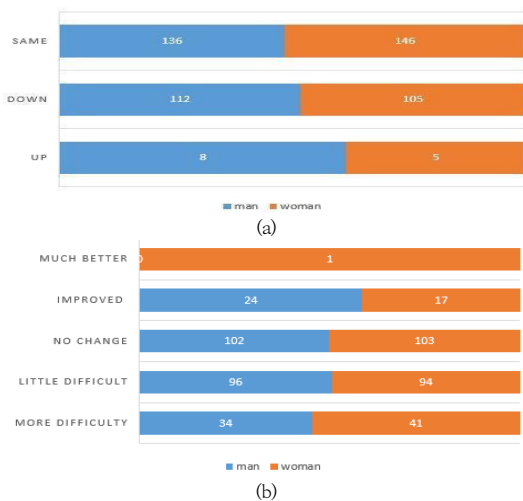


Fig. 2. Change of Household
(a) Changes in the household income before and after COVID-19; (b) Changes in household monthly income before and after COVID-19

Table 1. Activities most want to do after COVID-19*
N=512

Variance	Man		Woman	
	N	%	N	%
Visits to multi-use facilities (shopping malls, restaurants, gyms, etc.)	234	46.2	249	50.7
Outdoor activities(exercise, hiking, camping)	209	41.2	137	27.9
Play, Art, Movie	220	43.4	237	48.3
Domestic and foreign travel	353	69.6	341	69.5
Participate in on-site training	48	9.5	31	6.3
Religious	46	9.1	62	12.6
Meeting with family and friends	229	45.2	279	56.8
Social meeting	182	35.9	137	27.9

N=frequency; %=percentage; *Multiple response question

3.4 COVID-19 종식 후 사회변화·방향성·재난대처 인식

COVID-19 종식 후 사회변화와 방향성, 재난대처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에 대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사회변화(집에서 여가를 즐기는 문화 확산)는 남성 3.68±0.83 여성 3.81±0.86로 성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011$). 사회변화(빈부격차, 세대 격차가 커짐)는 남성 3.68±0.87 여성 3.80±0.85로 성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026$). 대처인지(세계는 재난 상황에 잘 대처 할 것임)는 남성 2.95±0.94 여성 3.06±0.87로 성별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028$).

Table 2. Changes in perception after COVID-19

Variance	Man		Woman		Z*	p	
	M [†]	SD [†]	M	SD			
Social change	A	3.46	1.05	3.50	0.98	-0.441	.660
	B	3.49	0.90	3.49	0.89	-0.044	.965
	C	3.68	0.83	3.81	0.86	-2.533	.011
	D	3.68	0.87	3.80	0.85	-2.222	.026
	F	3.77	0.88	3.85	0.81	-1.305	.192
	G	3.71	0.85	3.70	0.76	-0.415	.678
Social direction	H	3.51	1.14	3.56	1.08	-0.595	.552
	I	3.76	1.03	3.90	0.91	-1.843	.065
	J	3.71	0.89	3.80	0.84	-1.574	.115
	K	3.36	0.99	3.32	1.02	-0.474	.636
	L	4.10	0.85	4.19	0.80	-1.534	.125
	M	3.59	0.81	3.51	0.83	-1.430	.153
Prepare awareness	N	3.65	0.97	3.70	0.91	-0.783	.434
	O	2.95	0.94	3.06	0.87	-2.193	.028
	P	3.69	0.89	3.78	0.87	-1.678	.093
	Q	3.60	0.94	3.58	0.97	-0.388	.698

A=Korea's international status rises; B=Individual freedoms will be restricted, such as disasters and infectious diseases; C=Enjoying leisure at home; D=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the generation gap is widening; F=Increased hatred and discrimination against specific group; G=Restructuring of the international economy; H=strong government; I=expand social safety; J=Promotion of online education and telecommuting; K=Strengthening public protection; L=Empowering communities to respond to crises; M="Me" is well prepared for disaster; N="Korea" is well prepared for disaster; O="world" is well prepared for disaster; P=Our society will overcome any difficulties; Q=Become a better society. †M=Mean, SD=Standard Deviation. * Mann-Whitney test

3.5 COVID-19로 인한 일상활동 변화

COVID-19 발생 전과 비교하여 종식 이후 일상활동 변화는 어떻게 될 것인지 결과는 Fig. 4와 같다. COVID-19 전·후 일상활동 변화(개인유지-개인 건강관리, 개인위생 등)는 남성 3.96±1.00 여성 4.14±0.95로 여성이 개인위생을 더 철저히 할 것이란 응답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4$). COVID-19 전후 일상활동 변화(가사노동-가정관리, 가족 돌보기 등)는 남성 3.63±0.81 여성 3.88±0.88로 여성은 가사노동이 많아 질 것이란 응답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16$). 코로나 전후 일상활동 변화(오프라인 친교 및 사교활동(모임 및 회식 등))는 남성 1.80±0.93 여성 1.62±0.93로 여성이 오프라인 친교 등의 활동이 줄어들 것이라는 응답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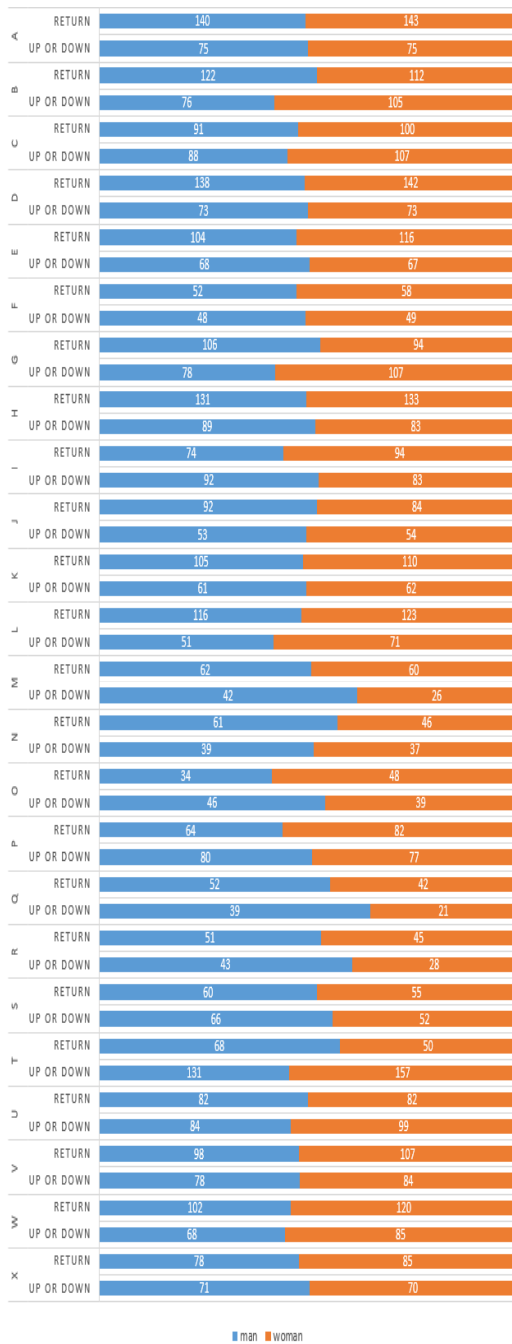


Fig. 3. Changing Perceptions after COVID-19
 A=Travel; B=Offline-shopping; C=Online-shopping; D=Art movie etc; E=Exercise; F=Religious; G=Media use; H=Offline-social meet; I=Online social meet; J=Own car; K=Public transportation; L=Move; M=Face-to-face class; N=Online class; O=Study; P=Housework; Q=telecommute

3.6 COVID-19 발생이 개인에 미치는 영향력 (심리, 감정)

Table 3. Changes in status after COVID-19

Variance		Man		Woman		Z*	p*
		M†	SD†	M	SD		
Difficulty in using information	A	3.5	0.86	3.55	0.95	-0.261	.794
	B	3.36	0.96	3.43	0.99	-0.557	.578
	C	3.47	0.95	3.39	0.98	-0.171	.864
	D	3.82	0.93	3.95	0.86	-1.522	.128
Information use (Personal)	E	3.68	0.81	3.71	0.77	-1.692	.091
	F	3.31	0.88	3.11	0.85	-3.319	.001
	G	3.62	0.84	3.56	0.76	-0.433	.665
Influence: Psychological emotion	H	3.63	0.81	3.97	0.75	-6.247	.000
	I	3.47	0.72	3.75	0.73	-5.156	.000
	J	3.62	0.71	3.82	0.71	-4.582	.000
	K	3.76	0.87	3.84	0.83	-2.19	.029
	L	2.98	0.88	3.13	0.93	-1.907	.057
	M	3.91	0.73	4.09	0.64	-4.766	.000
	N	3.45	0.68	3.6	0.67	-4.717	.000
O	3.03	1.06	3.18	1.04	-2.145	.032	

A=Too much news and information about COVID-19; B=Difficulty distinguishing reliable information; C=Confusion due to a lot of disinformation and misinformation; D=Similar news repeatedly; E=Finding necessary information; F=Misinformation and misinformation Distinguishable; G=Using information to take action for self-response; H=Anxiety Fear; I=Helplessness or frustration; J=Nervous angry; K=Anger and hatred a specific target; L=Gratitude or relief; M=Worry or stress; N=Loneliness or depression; O=Pride in the country or society. †M=Mean, SD=Standard Deviation. * Mann-Whitney test

COVID-19 발생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COVID-19 관련 정보이용의 어려움은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COVID-19 정보이용에 대한 개인적 생각은 “허위정보 및 오정보 잘 구별”한다고 남성 3.31±0.8 여성 3.11±0.85로 남성이 여성보다 잘 허위정보나 오정보를 잘 구별한다고 하였다 (p=.001). COVID-19 영향력으로 인한 심리감정 결과 “불안 두려움”은 남성 3.63±0.81 여성 3.97±0.75로 여성이 높게 나타났다(p<.001). “무기력감 또는 좌절감”은 남성 3.47±0.72 여성 3.75±0.73로 여성이 높게 나타났다(p<.001). “짜증 또는 화”는 남성 3.62±0.71 여성 3.82±0.71로 여성이 높게 나타났다(p<.001). “특정

대상을 향한 분노 또는 혐오”는 남성 3.76 ± 0.87 여성 3.84 ± 0.83 로 여성이 높게 나타났다($p=.029$). “걱정 또는 스트레스”는 남성 3.91 ± 0.73 여성 4.09 ± 0.64 로 여성이 높게 나타났다($p<.001$). “외로움 또는 우울함”은 남성 3.45 ± 0.68 여성 3.60 ± 0.67 로 여성이 높게 나타났다($p<.001$). “국가나 사회에 대한 자긍심 또는 자부심”은 남성 3.03 ± 1.06 여성 3.18 ± 1.04 로 여성이 “국가나 사회에 대한 자긍심 또는 자부심”이 높게 나타났다($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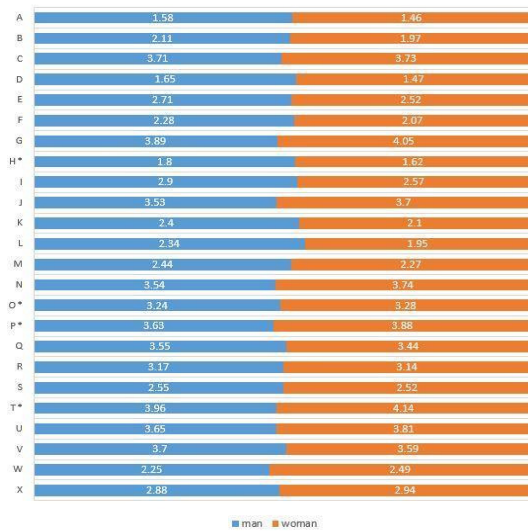


Fig. 4. Changes in the Everyday Life after COVID-19
 A=Travel; B=Offline shopping; C=Online shopping; D=Play, art, movie; E=Exercise; F=Religious; G=Media; H*=Social meetings-offline; I=Social meetings-online; J=Move(own car); K=Move(public transportation); L=Move; M=Study(face-to-face class); N=Study(online class); O*=Study; P*=Housework; Q=Work(telecommute); R=Work(flexible work etc); S=Work(income); T*=Personal maintenance(health care, hygiene, etc.); U=Meals and snacks(home-cooked); V=Meals and snacks (delivered food); W=Meals and snacks (dining); X=Sleep. *Average

4. 논의

본 연구는 수도권 성인 512명을 대상으로 COVID-19 발생으로 심리·감정에 미치는 영향과 COVID-19 종식 후 국민의 일상변화와 인식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COVID-19 종식 후 성인남녀 평균 69%가 개인 건강관리 및 개인위생을 유지한다고 하였고,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할 것이라 하였는데, Kim, Yoon과 Sohn(2021) 연구에서도 신종감염병에 대해 많

은 지식을 알고 있을 경우 예방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16]. 이와 같이 신종전염병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지식을 인지할 수 있다면 그만큼 질병의 발생을 줄이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다. Chang과 Lee(2020)는 COVID-19가 증가 되는 시점에서는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의 방법만으로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17], 이를 위해서는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를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중요한 요인이라 생각할 수 있다. Lee(2021)는 개인적 차원에서 TV 시청, 지인과 대화, 인터넷 사용이 많을수록 COVID-19에 대한 위험 인식이 더 커졌다고 하였는데[18], 이 또한 COVID-19 정보에 대한 무분별한 정보의 홍수로 인하여 정확성과 불안감만 가중시켰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COVID-19 전후 일상활동 변화(가사노동-가정관리, 가족 돌보기 등)는 여성이 가사노동이 많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높았다. 이는 COVID-19를 겪으면서 회사는 재택근무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가정에서 머무는 시간이 증가하는 사회환경으로 변화되고 있는 사회환경적 요인이기도 할 것이다. COVID-19는 일상생활에서도 재택근무, 원격수업 등 많은 부분에 변화를 갖고 왔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가정에 머무르는 시간이 증가할 수 밖에 없고, 그만큼 가사노동이 가중되는 어려움을 동반하게 되는 것으로 가족 구성원 간의 배려와 분담이 더욱 필요할 것이다.

COVID-19 종식 이후 가장 빨리 재개하고 싶은 활동의 다중응답 결과 남성은 “국내·외 여행”, “다중이용시설 방문(쇼핑몰, 레스토랑, 헬스장 등)”, “가족 및 지인 만남”, 여성은 “국내·외 여행”, “가족 및 지인 만남”, “다중이용시설 방문(쇼핑몰, 레스토랑, 헬스장 등)” 등 순으로 성인들이 생각하는 우선순위 활동은 비슷한 경향을 보였는데, 상위 모두 COVID-19로 인한 억압된 제한 행동을 표출하고 싶은 생각들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Choi와 Noh(2021)는 COVID-19로 인해 생활 체육시설 종사자들의 직무 불안정이 높아져 이직이 됨으로써 체육시설 안전과 서비스 관리에 연속적인 문제 발생 요인이 된다고 하였다[19]. 국내 연구에서도 COVID-19 유행기간 워터파크에 대한 이용이 제한됨과 불편함으로 감소가 되었으나 워터파크에 대한 관심은 높았다는[20] 결과를 보면 사람들이 전염병에 대해 주의를 하면서도 COVID-19 이후 하고 싶고 가고 싶은 것들에 대한 정보나 현황에 관심 두는 것을 알 수 있었다.

COVID-19 정보이용에 있어 남성이 여성보다 허위정보 및 오정보를 잘 구별한다고 생각한다고 하였고, 반면

COVID-19로 인한 “불안 두려움”은 여성이 더 높았는데, 두 결과를 연계해서 생각하면 정확한 정보를 찾고 확인할 수 있다면 그만큼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을 낮춰주고 생활에 안정을 가져다줄 수 있을 것이다. 중국도 자국민 대상으로 COVID-19 관련 조사한 결과 우울이 16%, 불안이 28.8%로 경험을 했다고 하였다[21]. 이를 통해 코로나 발생으로 인한 국내외 일반 대중의 심리적 어려움의 수준이 상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COVID-19에 대한 허위정보(오정보)는 불안과 두려움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무기력감 또는 좌절감”을 높이고 “짜증 또는 화”가 높아지는 결과를 볼 수 있다. Lee(2020)도 연구자의 29.7%가 COVID-19로 우울감을 경험했고, “낮은 불안 집단”이 불안감을 경험했다고 하였다[22]. COVID-19는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신종전염병으로 일상생활에서 우울감, 두려움, 불안감 등을 야기 시켰고,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될지 모른다는 생각을 높여 공포를 느끼게 했다.

COVID-19 종식 이후 사회변화 중 대표적으로 집에서 여가를 즐기는 문화가 확산할 것이라는 생각이 더 높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남성보다 “빈부와 세대격차”가 커질 것이라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일반대중 대상 연구에서 COVID-19 이후 삶을 예측할 수 없어 두렵거나, COVID-19 발생으로 삶의 질이 나빠졌다고 49.3%가 생각한다는 연구도 보고되었다[21].

결과적으로 COVID-19와 같은 신종전염병은 우리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제약을 초래했고 개인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사회경제적으로는 마비가 되는 현실을 겪게 되었다. COVID-19에 대한 태도와 인식은 남녀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명확하게 나타났는데, 이제 우리는 반드시 COVID-19 이후 가정, 사회, 경제는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인지하고 있다. COVID-19와 같은 신종전염병은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것으로 비대면의 생활 환경을 만들었고, 자유로웠던 실내 생활은 제약받았다. 이에 따라 사람은 자신감의 저하, 일의 생산력 저하, 학생들의 학습 저하가 되지만, 위험, 재난, 질병에 대한 두려움은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지금으로는 COVID-19의 종식보다는 “위드-코로나”를 준비해야 한다고들 하는데, 이에 조만간 우리가 맞게 될 “위드-코로나”에 대한 억눌리고 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폭발적 발산이 아닌 체계적으로 준비된 “위드-코로나”를 맞이해야 신종전염병 발생으로 인하여 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발생 전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5. 결론 및 제언

수도권 성인을 대상으로 본 연구는 2020년 한국언론진흥재단 연구자료 “COVID-19 이후 국민의 일상변화 (Changes in the everyday life after COVID-19 in Korea)”를 데이터 정제하였다. 수도권 성인의 COVID-19에 대한 일상변화, 인식, 태도에 대하여 성인 남녀에 대하여 분석하였으며, COVID-19 종식 이후 우리가 대비해야 할 방향과 인식을 사전에 알아 볼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이에 따른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COVID-19가 많이 발생하는 인구 밀집 수도권 성인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 향후 비수도권 성인과 수도권 성인을 비교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는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것으로 학생이 중심이 된 연구가 추가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1]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Coronavirus Infectious Disease-19 Information [Internet].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2020 [cited 2020], Available From: <http://ncov.mohw.go.kr/baroView.do?brdId=4&brdGubun=41> (accessed Mar. 10, 2022)
- [2] World Health Organization, Novel Coronavirus (2019-nCoV) SITUATION REPORT-1 [Internet]. WHO, 2020 [cited 21 January 2020], Available From: https://www.who.int/docs/default-source/coronavirus/situation-reports/20200121-sitrep-1-2019-ncov.pdf?sfvrsn=20a99c10_4 (accessed Mar. 10, 2022)
- [3]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Director-General's opening remarks at the media briefing on COVID-19 [Internet]. WHO, 2020 [cited May 10, 2020], Available From: <https://www.who.int/director-general/speeches/detail/who-director-general-s-opening-remarks-at-the-media-briefing-on-covid-19---11-march-2020> (accessed Mar. 10, 2022)
- [4] World Health Organization, Bulletin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Internet]. WHO, 2021, Available From: <http://www.ncbi.nlm.nih.gov/pmc/articles/PMC7947934> (accessed Mar. 10, 2022)
- [5]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Press Release [Internet].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2020 [cited May 10, 2020], Available From: <http://ncov.mohw.go.kr/tcmBoardView.do?brdId=&brdGubun=>

- [dGubun=&dataGubun=&ncvContSeq=352435&contSeq=352435&board_id=140&gubun=BDJ](#) (accessed Mar. 11, 2022)
- [6]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COVID-19 Pan-Government Preparedness Conference Briefing [Internet].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0 [cited May 10, 2020]. Available From: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2&CONT_SEQ=353064&SEARCHKEY=TITLE&SEARCHVALUE=23%EC%9D%BC (accessed Mar. 11, 2022)
- [7]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coronavirus (COVID-19) dashboard [Internet].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2021 [cited Oct 18, 2021]. Available From: <https://covid19.who.int/> (accessed Mar. 11, 2022)
- [8] S. M. Park, "The impact fo the COVID-19 pandemic on mental health among population", *Korea Journal Health Education Promotion*, Vol.37, No.5, pp.83-91, 2020.
DOI: <https://doi.org/10.14367/kihep.2020.37.5.83>
- [9]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Public perception survey regarding COVID-19 self-isolation [Internet]. 2020 [cited Apr 28, 2020]. Available From: <http://www.mcst.go.kr/english/> (accessd May. 29, 2022)
- [10]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Press Release [Internet].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2022 [cited Abr 14, 2022]. Available From: https://www.kdca.go.kr/board/board.es?mid=a2050100000&bid=0015&list_no=719275&act=view (accessed Mar. 11, 2022)
- [11] JoongAng, With COVID-19 [Internet]. The JoongAng. 2022 [cited Abr 25, 2022]. Available From: <https://www.joongang.co.kr/issue/11488> (accessed Abr. 27, 2022)
- [12]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foreign country Safe Travel [Internet].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vailable From: <https://www.0404.go.kr/dev/main.mofa> (accessed Abr. 27, 2022)
- [13] Yonhap News Agency, Government lifts 'Special Travel Advisory' from tomorrow... Only 2 years after COVID-19 [Internet]. Yonhap News Agency. 2022 [cited Abr 13, 2022]. Available From: <https://www.yna.co.kr/view/AKR20220413109200504> (accessed Abr. 17, 2022)
- [14] Korea Press Foundation, Changes in the everyday life after COVID-19 in Korea. Report, Korea, pp.12-15, 2020.
- [15] O. N. Kim, "Factors Affecting Post-Traumatic Stress of Nurses in Direct Care for COVID-19 Patients", Master's thesis ,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pp.2-3, 2021.
- [16] Y. B. Kim, T. H. Yoon, A. R. Sohn, "Effects of COVID-19 knowledge, risk perception, subjective norms, and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on preventive action intentions and preventive action practices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Health Education Promotion*, Vol.38, No.1, pp.25-36, 2021.
DOI: <https://doi.org/10.14367/kihep.2021.38.1.25>
- [17] D. Y. Chan, C. K. Lee, "Impact of the risk perception of COVID-19 and health consciousness on protective motivation and behavioral intention", *Korean Journal of Hospitality and Tourism*, Vol.29, No.7, pp.191~208, 2020.
DOI: <https://doi.org/10.24992/KJHT.2020.10.29.07.191>
- [18] W. S. Lee, M. G. Choi, J. W. Yoo, "Estimating the Relationships among COVID-19 Pandemic Information Channel Use, Risk Perception, and Behavioral Response", *Korean Journalism*, Vol.65, No.5, pp.402~436, 2021.
DOI: <https://doi.org/10.20879/kjics.2021.65.5.011>
- [19] S. K. Choi, Y. H. Noh, "The Effect of Job Instability and Job Stress on Turnover Intention in the COVID-19 Situation: Focused on the Moderating Effect of Sports Facility Workers'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Journal of Korean Society Quality Management*, Vol.49, No.2, pp.183-200, 2021.
DOI: <https://dx.doi.org/10.7469/JKSQM.2021.49.2.183>
- [20] Y. N. Lee, J. H. Suh, "Analysis of Changes in Perception and Usage Behavior of Water parks Using big Data Analysis", *Journal Recreation and Landscape*, Vol.15, No.4, pp.1-9, 2021.
DOI: <https://doi.org/10.51549/JORAL.2021.15.4.001>
- [21] C. Wang, R. Pan, X. Wan, Y. Tan, L. Xu, et al., "Immediate psychological responses and associated factors during the initial stage of the 2019 coronavirus disease (COVID-19) epidemic among the general population in China",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Vol.17, No.5, pp.1729-1753. 2020.
DOI: <https://doi.org/10.3390/ijerph17051729>
- [22] D. H. Lee, Y. J. Kim, D. H. Lee, H. H. Hwang, S. K. Nam, J. Y. Kim, "The Influence of Public Fear, and Psycho-social Experiences during the Coronavirus Disease 2019(COVID-19) Pandemic on Depression and Anxiety in South Korea",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32, No.4, pp.2119-2156, 2020.
DOI: <https://doi.org/10.23844/kjcp.2020.11.32.4.2119>

김 은 엽(Eun-Yeob Kim)

[종신회원]



- 2005년 8월 :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보건대학원 (보건학석사)
- 2016년 8월 :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의학박사)
- 2022년 3월 ~ 현재 :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부설 피부영상의학연구소

<관심분야>

정보의학, 보건의료, 역학

김 재 영(Jae-Young Kim)

[정회원]



- 2009년 2월 :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의용생체공학 (공학석사)
- 2015년 2월 :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의용생체공학 (공학박사)
- 2009년 10월 ~ 2012년 12월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초정밀연구장비개발부
- 2015년 2월 ~ 현재 :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연구교수

<관심분야>

헬스케어, 빅데이터, 의료정보, 인공지능, 의공학